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45-0849	Telephone	845-0849
발행호수	1778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12월 9일	Issue No.	1778
	금요일	Date	Jan. 16, 1970: Fri.

비에트남 방첩, 전미극전투부대의 철퇴계획은 불변, 라자-스장관연설

(워싱턴 1월16일 밤, 공동) 라자스미극투장관은 15일, 극우성에서 열린 신문.방송권잡자들을 위한 외교정책설명회에서 연설하고, 그중에서 남비에트남에있는 미군의 권전우부대를 철수할것을 명백하게하는 동시에, "남비에트남에있는 권우에 미군이 참가하지않게한다는 닉슨대통령의 계획은 변경되지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동장관은 또 "모든 미군권우부대가 철수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군단 부대가 철수할때까지, 또는 북비에트남이 고심을 통해서 남비에트남국민의 자결을 인정하는 평화의 결정출판때까지, 닉슨대통령의 계획은 계속될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라자스장관은 미군철퇴의 시간표는 명백치않은데, 동장관의 연설은 어떠한 절저가 일어나더라도 미국이 단계적으로 비에트남전쟁으로부터 손을 댈것을 닉슨정권의 수뇌로서 가장 명백히 밝힌것이다.

미군 병력을 더 감원, 국방장관담

(워싱턴 1월16일 밤, 에이피) 페아트국방장관은 15일 라성에서 기자회견을하고, "6월까지 미군 총병력을 약30만명 감원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감원은 전담의 워싱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말한 수자를 3만5천명이나 초과하고있으며, 현재 진행중의 5만명의 제4차 비에트남철병중도, 4월중으로부터 7월에걸쳐서, 제4차 철병이 있스리라고 본다. 작년이래의 철병총수는 4월중까지에 10만 8천5백명에달한다. 국방중성당국은 4월이후의 3, 4개월내에 5만명의 선으로 제4차철병이 거행되지않나 시사하고있다. 이추측이 실현되면, 남비에트남의 미군병력은 40만명이 된다. 또 30만명감원으로 미군총병력은 3백15만5천명으로된다. 이미 병력감원의 결과 신규징병인원도 작년의 29만명으로부터 금년에는 22만5천명으로 감소될것이 예상되고있는데, 이별의 페아트의 반향에의해 더 내려올것으로보인다. 페아트장관은 이기자회견에서 "예산삭감, 비에트남 개인의 애소, 이에 부수하는 매입의 삭감에의해, 국방관계인원은 약125만명 감원할수있다" 라고 말하였다. 국방관계인원에는 군인, 국방중성관계의 민간직원과 각기관, 방위산업의 종업원들이 포함된다.

오끼나와 반환후에 미.일 협력관계

(워싱턴 1월17일 밤, 공동) 라자스미극투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문.방송권잡자들을 위한 외교정책설명회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대해서 연설, 그중에서 일본.중국문제에 언급하여, 일본을 서독과 나란히 소련, 중공에이러 국제관계의 기둥이라고 말하였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미국.일본의 협력관계는 오기나와의 반관으로 새단계에 들어갔다 라고 설명하였다. 또 동봉에 대해서는 20일에 재개되는 월사외회담에서 미국이 "몇가지의 제안을한다" 라고 명백히하고, 중공 미국의 관계의 개선은 미국의 이익에 따르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동장관의 미국.일본문제에 관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정세의 움직임에 새로운 영향을 줄려고하는 두개의 강국 (일본.서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먼저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제3위의 경제국이 되었다. 일본은 아세아.태평양국가의 공동체 속에서 그의 지위에 적합한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정부는 72년에 오기나와를 일본에 반권하기를 결정한것이다. 이 역사적 결정은, 일.미관계에서서의 전후의 일에 중추적 역할을 차지한것으로 생각해야한다. 일.미관계는 70년대의 초에 있어서, 지금은 밀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1. 태평양의 공동체는 반근 권력을준다. 일본, 한국, 대만, 타이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상해는 가장 용기를 주는것이다.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협력적인 지위지키기는 만들어졌다. 일본의 새로운 입과 에네르지는, 태평양지역에서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미해병대 제 3사단 반영구적으로 오기나와에 주류계획

(나하 1월15일밤, 공동) 오기나와의 해병대기지시찰을 위해, 13일, 오기나와를 방문한 미해병 사단총사령관인 채우맨대장은, 14일 오전, 본도중부의 다이감미군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72년에 오기나와의 시정권이 반환되는데, 현재 오기나와에 주류하고 있는 제3해병사단의 육소, 철 퇴축의 계획은 없다. 반영구적으로 오기나와에 주류하는것이 해병대의 임무이다"

중.소련 전쟁의 가능성 있다

(워싱턴 1월16일밤, 에이미) 15일 국무성에서 기자회견하고 외교정책의 설명이있었는데, 이석상 국무성당국은, 중.소간에는 국경분쟁해결을 위한 회담이 진행중인데, 미국은 중.소전쟁의 사실상 가능성은있다고보고있다고 견해를 명백히하였다. 이 정책성명은 따자-스극장권이라, 국무성도관 다수물모아노도한것인데, 관여의해 발언자의 시도는 발표하지안키로되어있다.

그러나 따자-스장관의 발언은 전례를 7개틀리고 다음과같은 발언을하였다.

1. 중.소간의 일반적인 긴장에대처하는데있서, 미국에는 양국의 불화를 이용하려는 의도는없다.

1. 과거 1년간의 니슨외교는 비상한 성공을 하였다고본다. 비에트남전쟁은 최종적으로는 전미군 병력의 철퇴를 목적으로하는것이다. 니슨정권발족당시, 미국은 파도모 비에트남문제에 몰입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태에서 해방되고있다. 미.소 전담병기제한고성, 가까이 재개되는 미.중 회담, 타린.아메리카정책에있서서의 변경등이 들리고있다.

1. 미국에는 도입주의에 향하려는 경향은없다. 미국은 장래 세계정세와 점점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되며, 세계로부터 고통을 미할수는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태까지보다 더 절손한 태도로 발언한것이다.

이스라엘군부대 카이로 근처로 진출

(웹아미부 1월17일밤, 에이미) 이스라엘군사령부는 16일밤의 공적에서 이스라엘군이 카이로에의 36마일의 지점에까지 진출한것을 발표하였다. (제3편에 계속)

(제 2편으로부터 계속)

68년 10월말의 지상권의 개시이때, 이스라엘군이 이터제까지 카이로에 접근한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예지르(태평양함)측은 "이스라엘의 발트는 거짓말이다" 라고 부정하고있다.

또 카이로의 신문은 2월5일, 카이로에서 후세인.올단국왕과 넷서.애만현암대통령의 회담이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회담의 중심의제로서는 올단-이스라엘외교해결에대한 미국제안이 오의 될 모양, 또 2월7일부터 "대량 라인제국"의 수뇌회담이 열린다고 보도하고있다.

닉슨대통령 신년도 예산안에 새로운 시각

(워싱턴 1월14일밤, 에이미) 지구머대통령보도관은 14일, 님슨대통령이 13일의 각의에서 71년도" 연방예산제안에 "실질적으로 추가삭감을한다" 라고 명백히안것을 발표하였다. 예산고시발포의 직전의 이삭감은, 70년국회에서 주요한 신세의 제정을 미할려는 방침이라고한다. 예산고시발포는 최초 25일부터 1주일간이내로 예정되어있었는데, 지구머보도관은 이회중수정으로 2월제1주도 연기될지도모른다고 시사하였다. 또 추가삭감에의해, 71년회계년도예산은 이미 잉여를보이고있다 고한다. 어느당국측의의하면, 잉여어은 잡다한 세의 일괄인상, 도도, 비행장등의 사용료, 징세의 조속한 행동중의한것이다. 그액수는 수10억불이라고한다.

연방세출용액은 결국 2천30억불의 선에 올 예측이며, 어느측의의하면, 우체성을 위시하여 많은 행정기관이 예산삭감을 받을것이다. 71회계년도의 세입용액으로 재무성은 제정의 제안을하고 있는데, 그의 주요한것으로서 (1) 담배의 연방세를 인상과 8원으로부터 13원으로 인상한다. 또 주세를 10%로 인상한다. (2) 7개소련세를 7개년당 4원으로부터 5원으로 인상 (3) 재산세 중여세의 납세의 속도화등이 올라오고있다. 지구머보도관은 "71년도예산은 경제의 건전성을 육성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있는 물가의 고통을 억제하는데 최우선권을 주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비아후라에 대량 학살 없다고 보고

(오라와 1월17일밤 공동) 캐나다, 플랜트등 5개국과 국련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10일부터 비아후라의 수도, 오우에티봉 5개도시를 시찰하였는데, 그의 보고가 16일, 오라와의 본토등 5개소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는 "조사단은 비아후라의 전후가잇든 지역에서 대량학살이나, 기사(글머죽은것)가 잇섯다는 형적은 전혀 보이지안오, 그러한 이야기도 듣지안렀다. 당지는 3만명 으로부터 10만명의 미난민으로 넘었는데, 오우에티의 시내나 코외를 제외하고, 미난민의 다수는 건강상태는 조와보였다. 미난민의 아들중에는 영양부족의 징조를 보인 아해들은 잇섯는데, 그들 아해들도 구도의 영양부족은 안인것같았다" 라고 전하고있다.

애그뉴 암살 미수범, 체포 정신병원으로

(뉴지랜드 1월16일밤, 에이미) 뉴지랜드를 방문한 애그뉴부대통령의 암살계획을 공인한 남자가 15일밤에 체포되며, 오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이남자는 32세의 실업자로, 부대통령 체재중의 호텔에서 "오늘밤에 암살한다" 라고 공인한것이 이유로 체포된것이다. 또 오르랜드경찰의 말로는, 15일밤 호텔부근에서의 경관제와 반권시 위대의 마찰이잇은 현상으로부터 사용되지안은 라이플의 한환 두개가 발견되었다. 애그뉴부대통령은 오리오크.뉴지랜드수상과 회견하고 그후 자잡본 기자회견을하고, "부역문제에대해서 뉴지랜드측으로부터 대단히 남쪽이 가는 발언이잇섯다" 라고 말하였다.



(제 4 편)

六十五세 이상의 연장자에 버스 무료로

오는 2월 2일부터 바쁘지만은 시간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연장자는 군부운행의 시영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바쁘지만은 시간은 보통날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사이와, 주말과 휴일에는 동일로 되어 있다.

오노투루시 회의는 지난 13일의 정예시의 회의에서 자-프레스 행정보좌관의 추천에 의해서 버스 요금 삭제에 들어갔다. 회에는 연장자 요금의 저하가 추천되었는데, 가이 도시 회의원이 무료로 하기를 제안하고 채택되었다. 동시에 실명자와 그의 부수인은 시간에 관계없이 무료로 하기가 제안되었다.

시내 버스에도 같은 제안

또 가이 도시 회의원은 시내 버스의 요금에 관해도 군부와 같이 혜택을 만들도록 주권리극에 정원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 연장자 위원회의 하렌. 베너 부인 위원장은 시의 회의 이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과거 5년간 이상에 걸쳐 위원회에서 오노투루 버스 회사에 대해서 이것을 운동하여 왔다고 말하였다. 시정 부집단 은수과의 데이블. 정여사는 시의 버스 운행 지역에는 약 3천명의 연장자가 있으며, 도내의 실명자는 약 750명으로 그중 약 45명이 상가지역에 살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정여사는 연장자는 버스에 탄 때 연령의 증명으로서 "메디케어.카드"를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드를 갖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료 승차 신분 증명서가 발행될 장소 등에 대해서 상세가 가까이 발표된다라고 말하였다.

김종국 총영사 환영식 22일 일

작년 12월 초순에 아와이 총영사로 임명되어 부임하여 오신 김종국 씨와 동부인을 위한 환영회는 아와이 한인 연합회의 주최로 오는 23일(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와이키키의 일이가이 호텔에서 개최되는데, 이 환영식에 참여하고자하시는 분은 한인 연합회감부나 정순이 임혁사, 루시. 권여사, 자영옥 여사등을 통해서 일석이 예약하기를 바란다 고 한다. 가격은 일인당 7불 50원이라고 한다.

동지회관 매각 용고

동지회가 동건들과 뒤의 아바. 드멘스를 매각하였다는 것은 기보안바거니와, 동건들을 산 일본계 무역 회사에서는 내주일내에 계약금을 다치르고 건물수선 등에 속이 착수한다고 한다. 건물을 판 후 동지회에서는 오상부원을 다 소집하여 강태의 시정과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해평양주보도 몇번 더 발간한 후에 정간하게 된다고 하며 오랜 세월의 우원에 감사와 경의를 일반 독자 여러분께 올리고 있습니다.

리승만 박사 부인의 인사 말씀

동지회감부와 회원 여러분께... 아름다운 성한절 카드와 금전 선물에 감사하며, 저의 사랑하는 남편의 지극한 친구이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여 주는 것에 감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저의 남편 업시지내는 다섯 번째 성한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남편의 비석을 묘지에 세워 주신다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금년에 이것이 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영복 여사 별서

경구 우편 세스카 리

한인 기독교회의 절실한 후원자이며 부인구제회의 감부 행정원이었던, 베베레니아거리의 김가쿠상 주인 부인 전영복 여사께서는 지난 1월 13일 밤에 7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전영복 여사의 유족은 남편 김창수 씨, 아들 대길 씨, 며느리 복남 씨, 딸로는 조서부인, 애리시아, 옥경, 옥미, 옥자 의 5녀가 있고 손자녀가 25명, 증손이 4명이나 있다. 장례식은 지난 15일에 보스워과 한인 기독교회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오아후 매장지에 안장되었다고 한다.

